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5면)

채승우·박지효, 지역 근린공원 3곳 현장점검 실시

송파구의회 채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여1동·가락2동·문정1동)과 박지효 의원(국민의힘, 거여1동·가락2동·문정1동)은 8월 18일 오전, 지역구 내 주요 근린공원 3곳을 방문해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역 주민들이 공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송파구청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의원은 개롱근린공원, 문정근린공원 내 두담이공원, 거여근린공원을 차례로 함께 둘러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개롱근린공원에서는 배드민턴장 이용 주민들과 구청 관계 부서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민들은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인조잔디가 오래되어 우천 시 매우 미끄럽고, 이로 인해 넘어져 무릎 부상을 입는 이용자가 빈번하게 발생하



채승우 의원과 박지효 의원은 18일, 구청 관계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개롱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채승우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과 박지효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두 의원은 배드민턴장 인근 황톳길을 찾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 추가 설치 민원을 확인하고, 이용 동선과 설치 적합 장소를 살폈다.

두 번째로 찾은 문정근린공원 중 두담이공원 배드민턴장에서는 바다 정비와 관리 실태가 주요 안전으로

다뤄졌다. 현장 확인 결과, 플라스틱으로 설치된 라인 곳곳이 깨지고 밀바닥 흙이 꺼져 라인이 위로 튀어나오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또한 배드민턴 전용장임에도 축구 등 다른 운동을 즐기는 주민들로 인해 시설물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라 ‘배드민턴 전용장’ 안내 현수막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거여근린공원 황톳길(맨발걷기길)에서는 걷기 좋은 모래를 뿌려달라는 민원을 확인했다. 현장에 동행한 관할 부서인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이용 주민마다 선호하는 감촉이 다르다”며 “지압 자극을 즐기는 분들과 자극이 적은 모래 감촉을 선호하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 반영해, 구역을 나누어 적절한 입자의 흙과 모래를 분배해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현장점검을 마친 후 박지효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간에 불편이나 안전 위해 요소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함께 현장을 살핀 채승우 의원 역시 “현장에서 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라며 뜻을 모았다.

한편, 채승우 의원과 박지효 의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구청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예산 확보 및 개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